한국통신, 비동기식 IMT2000 핵심교환기술 개발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ATM 교환기 기반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 핵심 교환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3년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개발된 이 시스템은 국산 ATM 교환기인 한빛 Ace64기종에 비동기식 IMT-2000 이동교환기능을 접목한 것으로 비동기 IMT-2000 이동교환기(MSC), 서비스제어장치(SCP), 가입자정보처리장치(HLR)로 구성돼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개발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 부문은 별도로 하고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ATM 교환기상에서 비동기식 IMT-2000 핵심교환시스템을 탑재하는 한편 국내 장비업체들에 기술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내용 중 핵심기술로 꼽히는 비동기 IMT-2000 이동교환기(MSC)에는 IMT-2000망에 적용되는 프로토콜인 GSM-MAP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탑재했으며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서야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지능망 기능을 구현했다.

한국통신은 비동기식 IMT-2000 이동교환기(MSC)에 내장된 지능망 기술은 IMT-2000 서비스 능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핵심 부가서비스로 ATM 기반의 IMT-2000 이동교환기상의 지능망 서비스 구현은 전세계에서도 개발된 예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또 비동기식 IMT-2000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프로토콜인 GSM-MAP 기술은 가입자의 이동성관리, IMT-2000 이동호처리 등에 적용되는 필수기능으로 비동기 IMT-2000 시장표준단체(3GPP)의 최신 버전인 Rel99(2000년 3월)를 통해 구현됐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러한 개발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3일 대전 ETRI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동기식 IMT-2000 핵심망 교환기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차세대 지능망 서비스의 일종인 「범용개인통신서비스(UPT)」를 시연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이번 기술개발에 대해 『그 동안 일부기업들이 비동기 IMT-2000 핵심장치의 국내 개발 상용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동기식 채택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발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개발된 국산 비동기식 IMT-2000 핵심장치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국내 IMT-2000네트워크 구축시 수입대체는 물론이고 개발된 시스템의 수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과 ETRI는 이번 개발을 통해 얻어진 기술을 민간제조업체에 이전해 국내 비동기 IMT-2000 기술 개발의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표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표현은 이용자 편익, 사업자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 한국통신이 비동기식 기술표준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통신, 초고속인터넷TV서비스 개시

한국통신(대표 이계철 http://www.kt.co.kr)은 세계 최초로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망을 통해 일반가정의 TV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메가패스 TV넷」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신사동과 경기 분당지역부터 상용화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일반가정용 TV에 세트톱박스와 초고속 인터넷망인 메가패스 ADSL을 연결해 웹검색, e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이

나 주부 등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이용의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고속인 메가패스 ADSL 액세스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 정보검색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동영상 멀티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통신은 메가패스 TV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액세스망도 ADSL 위주에서 위성인터넷,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등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TV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컴퓨터를 몰라 인터넷정보습득에서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 메가패스 TV넷 서비스를 위해 세트톱박스 제작전문업체인 티컴넷, 인터넷TV 서비스 제공업체인 클릭TV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통신, 코넷 통합메시징서비스(UMS) 개시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코넷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내전화 요금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를 이달 1일 시작했다.

UMS는 음성, 팩스, 전자우편을 장소, 시간, 단말기에 관계없이 하나의 메일박스에서 통합운영하는 서비스로 가입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시범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현재 국내 10여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의 시외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대중화되지 못했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이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기 위한 전화접속 비용을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단일화했다.

웹 상에서 UMS를 이용하려면 코넷(KORNET)에 가입해야 하며, 인터넷-(http://ums.kornet.net)에 접속해 초기화면에서 화면 왼쪽 중단부의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약관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또 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1578과 정부의 UMS 번호안 통일 정책에 따른 신규접속번호인 03030을 7월 한달간 병행 사용하며 8월부터는 03030만을 활용하게 된다.

한국통신 VoIP사업부 노민현 부장은 『UMS서비스는 전국 단일 시내요금이 적용, 대중화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GT, 휴대폰으로 홈페이지 검색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지난 3일부터 무선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LG텔레콤 유무선 포털사이트 「이지아이(http://www.ez-i.co.kr)」에서 제공하는 제작툴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동시에 검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자신 소개, 취미, 거주지역, 나이, e메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해 명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검색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몰라도 상대방의 이름, ID 등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LG텔레콤 유무선 포털서비스 이지아이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ez커뮤니티」를 선택하면 된다.

LG전자, 중국현지법인서 TFT LCD모니터 생산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중국에 설립한 현지 모니터 생산법인인 LG전자유한공사(대표 노용악)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모

니터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이번 TFT LCD 모니터 생산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포함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15인치와 18인치 등 두 모델을 생산, 현지시장에 공급하거나 우회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 평면모니터 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LCD 모니터 생산을 계기로 중국 모니터 시장에서 1위 업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SKT, 열차 식당 무선결제 서비스

SK텔레콤(대표 조정남 http://www.sktelecom.com)은 한화개발 외식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새마을호 열차 식당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무선결제서비스는 철도청의 카드사용 활성화와 대고객 서비스 품질향상운동의 일환으로 외식사업본부가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SK텔레콤 무선신용카드 승인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무선 신용카드조회기와 011전용 이동전화단말기를 연결한 후 승인소요시간은 6초 내외. SK텔레콤은 이 서비스 이용시 무선데이터요금을 적용하므로 유선을 통한 ARS 대비 최대 80%까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선결제서비스는 우선 식사시간중에 연결운행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새마을호 열차에 한해 제공되고 연말에는 새마을호 전 식당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두루넷, 대대적인 고객서비스 개선 나서

두루넷(대표 김종길)은 고객센터가 강남구 서초동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고객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두루넷은 서초동에 10층 1000평 규모의 전용 건물을 마련하고 이전을 최근 완료하는 한편 현재 총 550명 규모인 전국 콜센터 요원을 연말까지 1400명 규모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두루넷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도 전국 공통으로 국번 없이 1588-3488로 통합 운영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고객 응대가 가능한 최첨단 콜센터 시스템인 ITI (Internet Telephony Integration)시스템을 구축, 8월 1일부터 고객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두루넷은 그 동안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인 「NISSI」와 함께 총 40억원을 투자해 인터넷 기반 ITI 시스템 개발을 마쳤으며 현재 안정화 작업중이다.

이번 ITI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정보 DB와 전화망이 통합된 자동응답 시스템이 도입돼 상담원 통화 없이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지능적인 고객응대 및 웹기반 고객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온세통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

온세통신(대표 장상현)은 전국 주요 지역의 케이블 TV 방송사업자(SO)와 제휴를 맺고 7월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비로샤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온세통신과 제휴한 사업자는 서울지역의 서초케이블TV를 비롯해 동작방송, 관악방송, 부산지역의 부산방송, 대구지역의 금호방송, 포항지역의 경북케이블TV, 청주지역의 청주방송 등이다.

온세통신은 제휴된 7개 SO 외에도 서울/수도권 지역, 중부권, 영.호남권 등에서 15개 SO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제휴되지 않은 지역은 파워콤의 HFC(광동축혼합망)를 이용해 직접 가입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온세통신은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실시해 향후 1년간 40만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비로샤크(http://www.sshark.co.kr)는 가입설치비 4만~6만원에 월 이용료 2만7000~3만4000원를 책정했으며 30MB의 홈페이지 용량과 추가 e메일 ID가 무료로 제공된다

온세통신은 지역 SO들과 인터넷TV 및 홈포털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함은 물론, 방범방재,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영상VoIP서비스 등 신개념의 양방향서비스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IBM 중형서버 AS/400, 출시 12주년 맞아 최장수 서버로 신기록 달성

IBM의 중형서버인 「AS/400」이 최근 출시된 지 12주년을 맞았다. 부침이 많은 컴퓨터 분야에서 전세계 최장수 서버 브랜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지난 88년 6월 처음 출시된 AS/400은 그동안 전세계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서버로 한결같은 인기를 누려면서 약 70만대 이상의 공급실적을 올렸다. 미국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가운데 93%, 1000대 기업 중 85%가 AS/400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IBM의 설명이다.

AS/400이 이처럼 장수 서버로 자리를 지켜오면서 수립한 기록 역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선 AS/400은 하드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완벽한 64비트로 구현된 최초의 서버로 자리매김됐으며 RAID-5 기술, 대칭형멀티프로세서(SMP) 기술을 상업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서버이자 바이폴러 상보성 금속산화막반도체(CMOS) 기술을 적용한 칩을 탑재한 최초의 서버로도기록되고 있다.

IBM은 올초 새로운 모습의 AS/400을 선보이고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제품 「AS/400-800」 시리즈. 이 제품은 IBM 특허이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구리칩 기술과 SOI 기술이 동시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서버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88년에 발표됐던 최초의 모델인 「B 모델」에 비해 성능이 무려 5000배 이상 높아졌다는 게 한국IBM측의 설명이다.

김동헌 실장은 『오는 8월경부터 국내에 본격 공급할 신제품은 기존 운용체계는 물론 새로운 서버 운용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리눅스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신제품은 단일 서버로서는 최고 수준의 가용성을 갖고 있으면서 총소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IBM은 신제품의 발표와 함께 7월 11일부터는 SAP코리아, i2코리아, 시벨코리아와 공동으로 ERP, SCM, CRM 솔루션을 바탕으로한 AS/400 신제품의 전국 순회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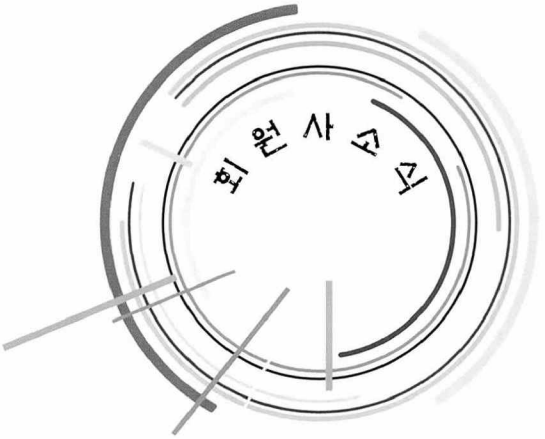
새롬기술 인터넷 무료전화 다이얼패드 일본 진출!

(주)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은 최근 자사의 인터넷 무료 전화 서비스인 다이얼패드의 일본 현지법인(Dialpad Japan, Inc)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이얼패드 일본 현지법인의 설립 초기 자본금은 1억엔이며, 전액 새롬기술이 출자한다.

새롬기술은, 회사를 운영해 나갈 Management Team을 현지인들로 구성하고, 전 삼성전자 이사 출신이며 일본 전문가인 김동철 씨를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김동철 일본 현지법인 임시 대표는, 일본 내에서 정식 서비스 오픈 전까지 실무적인 준비작업 및 현지 파트너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정식 서비스 오픈 이후에는 새롬기술이 추구하는 현지화 계획에 따라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일본인이 직접 다이얼패드 일본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새롬기술의 관계자는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세계화 전략은, 우선 각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언어로 된 사이트를 오픈하여 현지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각기 다른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 파트너와 통신회사를 선정,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일본 현지법인 설립 이후, 7월 초에 일본어로 구축된 다이얼패드 사이트가 오픈되어 우선 일본 사용자들이 한국과 미국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본 내 통신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가 오픈된 나라간의 통화가 가능해지게 된다.

새롬기술은 현재, 일본 내 통신회사 2-3개사와 제휴관계를 협의 중이며, 최종 선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제휴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이얼패드 일본 서비스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 선정 역시 일본 유수의 기업들의 큰 관심 속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새롬기술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다이얼패드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일본 현지법인 설립은, 미국에 이어 인터넷 사용자수 2위의 일본에 진출함으로써 다이얼패드가 세계적인 인터넷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며, 향후 전 세계 인터넷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한 인터넷 기업이 되려는 새롬기술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다이얼패드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서비스를 오픈 한지 불과 8개월만에 한국과 미국을 합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 인터넷 통신시장의 선두업체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목표로 하고 있는 10개국 진출 계획 역시, 일본 진출을 신호탄으로 보다 빠르게 구체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공과금, 전자화폐로 결제한다

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인터넷상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데이콤(대표 정규석)은 자사가 개발한 전자화폐 사이버패스를 이용해 인터넷(http://www.mybill.net)상에서 공공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7월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몇몇 통신업체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요금을 빌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자화폐시스템과 직접 연계해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국제전화 002, 천리안, 보라넷, 기업전용회선 등 자사의 서비스 요금결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여 만명에 달하는 사이버패스 가입고객들은 데이콤의 각종 서비스 요금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LG25시 등 편의점에서 사이버패스를 구입하거나 온라인(http://www.cyberpass.com)상에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데이콤의 공공요금 결제사이트(http://www.mybill.net)에 접속, 요금을 조회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된다.

데이콤 관계자는 『신용카드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전자지불 시스템 사용을 꺼리던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